



이 천 용
임업연구원 연구관

환경을 지키는 숲 보안림 (Ⅷ)

(7) 휴양(休養)보안림

(가) 휴양기능의 정의

산림의 휴양기능은 산림이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제공하는 기능이다. 숲의 독특한 기후는 인간의 물리적·정신적 휴양에 이바지한다. 숲은 도시나 농지에 비하여 기온변동이 적고, 상대습도가 비교적 높으며, 풍속이 낮고, 공기가 맑다. 특히 숲속의 공기에는 약효가 있는 방향물질(피톤치드)이 있다. 숲은 소음이 적으며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대면적이기 때문에 활동적이고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으며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하며 자연과의 접촉과 동식물의 관찰을 가능하게 한다.

(나) 급지분류 기준

급지분류는 방문자수, 도달용이도, 자연경관, 휴양시설, 방

인자 등을 조사하여 전체적인 고찰에 의해 1급지와 2급지로 정한다.

일반적으로 도시근교의 휴양림 대상은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경계에서 10킬로미터 이내의 숲, 인구 5,000~50,000명의 도시 경계에서 3킬로미터 이내의 숲, 휴양지에서 3킬로미터 이내의 숲으로서, 인구 5,000명 이하의 도시에서는 반경에 따른 경계구분이 불가능하므로 방문객이 많은 산림면적만을 휴양림으로 지정한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휴양지의 숲이나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의 주변 숲(예: 전망대, 수려한 자연경관, 강변)을 휴양림으로 지정한다.

한편 많은 세부기준에 의한 분류는 너무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구분한다.

① 방문객의 수와 빈도

휴양림의 방문객수에 의해 결정하는데, 1급지는 하루 1헥타르 당 10명 이상 방문한 곳이고, 2급지는 10명 미만이 방문한 곳이다.

② 휴양림의 위치와 상태

휴양림의 경계구분과 급지선정을 위해 위치, 접근성, 자연조건, 현존시설물, 방해인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휴양림의 가치는 도시와의 거리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도시 부근의 산림은 휴양기능이 크고 농·산촌 지역에서는 낮다.

접근성에 있어서 당일 휴양의 경우 도보나 차량으로 평균 30분이 걸리고, 주말휴양의 경우 약 1시간이 걸리는 곳은 1급지로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교통수단의 편리성은 특히 노약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도로망연결의 유무,

휴양림내의 산책로망과 자전거도로망의 밀도와 상대도 영향을 미친다.

자연조건의 인자로는 기후, 지형다양성, 산림구성(분포, 영급, 수종) 등도 휴양림 급지 분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휴양림내 현존 도로와 시설물들은 휴양림의 경계구분과 급지 선정에 용이하게 한다.

한편 휴양을 제한하는 인자는 급경사지, 늪지, 황무지, 모기와 같은 곤충의 서식지 등 자연조건의 부적합성, 공해(먼지, 가스, 소음), 휴양을 제한하거나 못하게 하는 자연보호지역 등은 휴양림 선정 및 이용에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

(다) 산림관리

숲 가장자리는 휴양객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림하거나 가꿀 때에는 특별히 조심하여 실시한다.

숲의 내부도 주의하여 조성하고 가꾸는데 중요한 지역은 수로, 조망로, 놀이터, 피크닉 터의 인접지이다. 인구과밀지역 주변의 숲은 건축물과 울타리나 공해피해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휴양기능이 낮기 때문에 휴양시설을 숲 안쪽에 설치한다.

휴양기능의 증진과 보존을 위하여 숲 가장자리에 활엽수와 관목류의 비율을 높게 조성한다. 특히 눈에 잘 띄게 꽃이 피고 가을에 단풍이 잘 드는 수종을 선정한다. 음지와 양지, 색, 형태의 다



▲라인강변의 주택근처의 휴양림



▲원형시내 주택가와 차도사이에 띠 숲을 조성하여 소음을 감소하고 경관을 보호한다.

양도, 변화도 등을 고려한다.

여러 개의 층이 있고 밀폐된 숲은 방풍기능이 좋으나 휴양객들의 조망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공터나 전망대를 만들어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활엽수 혼합림인 경우 침엽수를 추가로 식재하여 다양한 숲으로 만든다. 숲의 폭은 여러 층이 형성될 수 있도록 15~50미터 정도가 되어야 한다. 복층

림 조성은 양수와 음수를 함께 이용한다.

이상적인 숲의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초본지역은 폭이 1~5미터이며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그 뒤에 폭 5~15미터의 초본·관목지대가 있으며, 이어서 관목과 야고목 혼합지대가 폭 5~15미터로 연결되며, 다음에 야고목과 교목으로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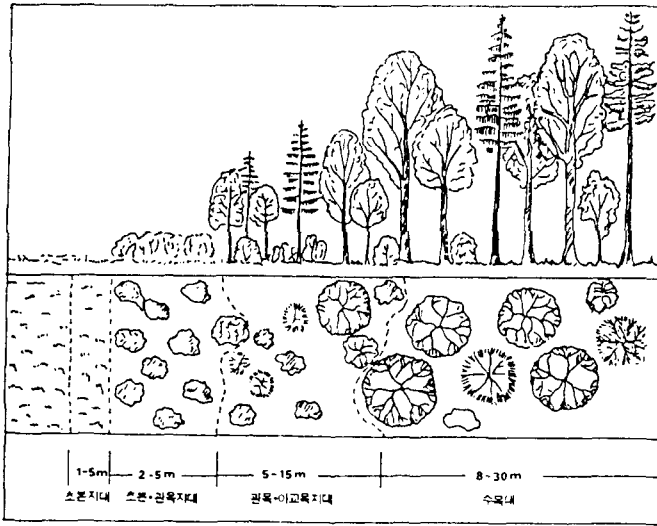


그림2 이상적인 숲 가장자리의 구조
 (자료 : Gestaltung und Kartierung
 der Waldränder, Wiesbaden 1989)

성된 폭 8~30미터의 띠 숲이 있다.

휴양기능 1급지를 관리하려면 다음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 노령림, 장령림, 유령림, 치수림, 나지들이 한 곳에 치중되지 않고 변화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 단일수종으로 산림을 구성하기 보다는 여러 수종들이 어울려 혼합림을 이루고 혼합형태도 집단, 작은 집단, 열로 심는 등 다양하게 한다.

- 직경이 굵은 나무나 집단이 많이 있어야 한다.

- 운벌기가 길어야 한다. 휴양림에는 노령림이 많아야 휴양기능이 높고, 노령림이 적은 곳은 휴양림으로 부적합하다.

- 일제단순림(一齊單純林)은 나무아래심기나 골라베기와 같은 방법으로 2층이나 여러 층으로 유도한다.

- 역사적인 산림경영 형태를 보존한다.

- 조림수종은 가능하면 향토수종을 선발한다.

한편 휴양림 조성은 입지에 따라 작은 면적이고, 장기갱신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갱신벌채시 나무 틀에 박힌 방법은 가능하면 피

하고 모두베기는 꼭 피해야 한다.

숲 가꾸기 방법은 경영목표에 맞추어 실시하지만 숲의 휴양기능의 증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다.

- 벌채와 숲 가꾸기는 휴양객수가 적을 때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작업능률을 올린다.



▲ 원천시 한복판에 있는 English 공원내 수자원 보호림과 깨끗한 물.

•벌채와 집재 후 조속히 산책로와 등산로를 치우고 정리한다.

•산책로 양쪽 숲의 가치를 정리하여 휴양객의 편리를 도모한다.

•눈에 띄는 획일적인 무육방법과 화학약제를 이용한 무육은 피한다.

•화학제품은 가능한 한 조금 사용하며, 비료는 대면적에 사용하지 않는다.

(라) 다른 보호림과의 상호관계

•휴양림내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수자원 보호지역에서는 휴양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침식이나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곳은 휴양시설(예 : 산책로, 벤치 등)을 설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곳을 피하기 위하여 휴양객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거나 다른 보호책을 마련한다.

•학술적으로 희귀하거나 멸종 위기에 있는 동식물이 있는 곳은 최소한 휴양이용에서 제외시킨



▲원천시 외곽을 흐르는 강 주변의 수자원 보호림과 일광욕을 즐기는 시민

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은 휴양시설을 이 곳과 먼 곳에 설치하여 이용객을 유도한다.

•소음방지림에는 장기체류하는 휴양시설을 하지 않는다.

적인 해결방식은 찾기 어려우므로 해당 기능의 지역적인 중요성에 따라 주로 조림이나 지역개발적인 방법을 통하여 조정한다. 산림의 다양한 기능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마찰은 <표 6>과 같다.

(8) 보호림의 상호관계

산림의 여러가지 기능은 동일한 지역에서 발생하므로 마찰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일반

<표 6> 산림기능의 상호관계

산림기능	수자원보호	기후보호	소음방지	오염방지	토양보존	휴 양	자연보호
수자원보호	-	○	○	×	○	×	○
기후보호	○	-	○	○	○	○	○
소음방지	○	○	-	×	○	×	×
오염방지	○	○	○	-	○	×	×
토양보존	○	○	○	○	-	×	×
휴 양	×	○	×	×	×	-	×
자연보호	○	○	×	×	○	×	-
목재생산	○	○	○	○	○	×	×

<○> : 보완 내지는 무관, <×> : 경쟁